

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(제40-43문) :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되심

안태환 목사 (피스메이커교회)

1. 예수님의 죽음 이해

(1)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셨다고 말씀하는가?

① 이단 사상

- 1) 마르시온(Marcion, AD84-160) : 가현설(假現說, Docetism),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인성 부인,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모든 일들이 상상에 속한 것이라 주장. 영육이원론(물질과 영혼의 대립) 영향 받음(영지주의, Gnosticism)
- 2) 네스토리우스(Nestorius, AD386-451) : 신성과 인성을 분리하여 설명,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인간 그리스도만이 죽은 것이라 주장.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함,
⇒ J. Calvin, “우리는 네스토리우스의 오류를 배척한다. 그는 그리스도의 본성을 구별하지 않고 분리시키고자 해서 이중(二重)의 그리스도를 생각했다. 성경은 분명한 음성으로 이 생각에 반대한다. 성경에는 “하나님의 아들”이라는 이름을 처녀에게서 나신 이에게 적용하며(눅1:32), 그 처녀를 “내 주의 어머니”라고 부른다(눅1:43).”(Inst., II, 14:4)

② 성경의 가르침

- 요1:14 “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...” ⇒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심을 증거
- 눅23:46 “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” ⇒ 그리스도의 죽음은 역사적 사실(Reality)임을 증거
- ⇒ 마27:46 “...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? ...” ⇒ 신성과 인성의 분리없이 인성의 고난 중의 외침 신성이 분리될 수 없는 이유?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함(신성)

(2)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것이 과연 필요했는가?

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

- 롬6:23a “죄의 삯은 사망이요...” ⇒ 죄인의 마땅한 처지 = 죽음과 멸망
- 구약의 희생제사 = 흠 없는 제물, 제물의 피흘림 ... 온전한 희생제물이신 예수님을 위한 모형
- ⇒ 1) 흠없는 제물로, 2) 죄없는 대제사장이 되어 3) 단번에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리신 예수님
- “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”(롬8:3-4)

②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

- 창2:17 “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”
- 아담은 왜 죽지 죽지 않았나? 1) 곧바로 죽을 처지가 됨. 조금씩 죽어가는 상태, 이미 죽음의 시작을 경험.
- 2)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두려움과 진노를 자각함(창3:10).
- 창3:10 “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”

③ 선지자들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

- 사53:7 “그가 ...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 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”

④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의 죽으심이 필요하다고 예언하셨기 때문에

- 요3:14 “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”
- 요12:32 “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”

(3)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가?

① 모든 사람을 위해? 자기 백성을 위해? ⇒ 모순처럼 보이는 성경의 진술

- 고후5:15 “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...”
- 마1:21 “...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”
- ⇒ 하나님의 말씀은 모순적이지 않다. 이유는?

- 1)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 ⇒ 모든 사람 = 모든 성도 전체를 가리킴
- 2)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충족성(sufficiency)과 유효성(efficiency)

충족성: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에 충분함.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음. 모든 사람들 중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음.

유효성: 오직 믿는 자들을 위해서만 죽으심.

요3:16 “...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”

암브로시우스 “모든 사람들과는 구별되고 미리 아신 바 된 택한 자들의 특별한 보편성이 있는 법이다.”

2. 예수님이 장사되신 이유

(1) 죽으심의 역사적 실재성을 드러내기 위해

- ① 죽은 자에 대해서만 장사를 지냄. 장사를 지냈다는 것 육체적 죽음의 확실한 근거.
- ②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이 확실하다는 것은 우리의 구속 또한 확실하다는 증거.

(2) 낮아지심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하기 위해

-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영광의 일부
- 장사되심은 우리가 자초한 형벌과 저주의 치욕의 일부
- => 우리로 인하여 완전히 낮아지신, 시체가 되는 일도 마다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.

(3) 무덤에 대한 공포 대신 안식의 처소를 알기 위해

- 장사되심을 통해 부활하신 무덤을 기록하게 하심.
- => 우리에게는 죽음과 공포의 장소가 없고 부활하기까지 평화롭게 안식할 수 있는 안식처가 있음.

(4) 부활이 실제로 죽은 시체가 생명을 얻는 진정한 부활임을 밝히 알리심.

(5) 우리도 예수님처럼 장사될 것, 동시에 그의 능력으로 부활하게 될 것 => 부활의 확실한 소망을 알려 주심.

(6)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 쉬도록 하시려고 장사되심.

- 롬6:4 “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”

(7)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려고

- 욥1:17 “... 요나가 밤낮 삼 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”
- 시16:10 “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...”

3. 우리는 왜 죽어야 하는가?

(1) 예수님의 죽음: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는 죽음.

(2) 우리의 죽음:

- ① 죄의 잔재가 남아 있음에 대한 교훈 ② 죄의 심각성에 대한 교훈
- ③ 죄의 잔재를 제거 ④ 영생으로 옮겨가는 것.

=> 우리의 죄는 우리 속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죄가 용서받은 것일뿐.

죄 자체는 점차 제거되는 과정에 있음 => 모든 죄의 잔재에서 자유함 얻기까지 회개와 기도가 필요

4.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결과(유익)

(1) 칭의 혹은 죄사함

예수 그리스도의 피 => 원죄, 자범죄, 작위와 부작위의 죄까지도 씻어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심.

(2) 중생 혹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본성이 새로워짐

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을 거하게 하심

요16:7 “...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”

(3) 영생

요3:16 “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”

*감사와 경건의 열매

*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적용되어 우리가 그것을 정당하게 생각하게 되면 감사치 않은 상태로 있을 수가 없고,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한량없는 은택에 대해 깊은 감사를 돌리지 않을 수 없다.

*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자신에게 적용시켰다고 자랑하면서도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서 구주를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열매가 없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, 또한 자기 속에 진리가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.